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김동엽(경남대학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크게 대남적화전략과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다는 두 가지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종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Bad)에 근거한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인해왔다. 이러한 위협인식에서는 결국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종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종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권 전복을 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열어나가는 데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 위협인식, 피포위 의식, 군사도발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가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의 대남적화전 전략 관점에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하려는 대남전략에 있다고 본다.¹⁾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불변이며, 대남적화

1)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를 ‘미제식민지·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 데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민족해방) 한국의 반공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다시 힘을 키우면 대남적화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Bad)에 근거하고 있다.³⁾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는 합리적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⁴⁾ 역설적으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당면한 북핵문제가 북한의 위협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논의 없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인식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
- 2) 이에 대해서는 유동렬, “대남 비타협적 군사주의 노선: 대남 적화전략 기조유지와 제한적 군사도발 자행,” 『북한』, 통권 469호(2011.1)를 참조.
 - 3) 악당론을 비롯하여 북한을 보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글은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2000)을 참조.
 - 4)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에서 중국의 왕광아(王光亞)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안보우려’, ‘미·북 직접대화’를 미국에 촉구하였다. “China urges U.S. to accommodate DPRK’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Xinhua, July 29, 2013.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현재 네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핵무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중단 요구가 공포감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불변의 대남전략 때문이 아니라 대외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낀 공포심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읽는 것은 당면한 군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통보

군대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숙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 군과 미군도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5) 일반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부르지만 ‘키리졸브/독수리’, ‘울지프리 덩가디언’ 등은 ‘훈련’이 아니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한미

<표 1> 한미군사연습 현황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을지프리트덤 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절차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 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 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총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 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 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 지역 방 호작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 기, 전방 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자료: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256쪽.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가 흔하지 않은 미군들에게 훈

해병대의 연합상륙작전인 ‘쌍룡’ 등은 훈련이다. 군사용어로 ‘연습’과 ‘훈련’은 차이가 있다. ‘연습(Exercise)’은 연합·합동작전 차원에서 작전술 제대의 작전 기획·준비·시행을 포함한 군사 기동 또는 모의된 전시 작전 시행 절차 숙달 과정으로 전투·전투 지원·전투 근무 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해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반면 ‘훈련(Training)’은 통합 전투력 발휘 차원에서 전술 제대의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인 숙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고 일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연습’을 사용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훈련』(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훈련들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국적이고 연합적이며, 합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군 전체에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가지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안보적 효과 외에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미군사연습은 키리졸브(KR: Key Resolve)/독수리(FE: 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이 대표적이다(<표 1> 참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표적인 합동 군사훈련 중 잘 알려진 팀스피리트(Team Spirit)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라고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AX)이다.

독수리(FE) 훈련은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되어 1975년부터 연합 및 합동작전과 연합특수작전 개념을 추가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하여 특전부대의 침투 및 타격 훈련과 중요시설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연습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2년 RSOI/FE연습 시 상호통합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KR/FE로 바꾸어 지휘소 연습과 야외실

기동훈련을 병행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연습으로 확대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독 및 한미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면전시 한미 연합 전장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연습으로 작계에 기초하여 컴퓨터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과 정부연습으로 시행되고 있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하에 시행해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통합되어 컴퓨터 위게임 기법을 이용한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연습으로 발전되었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는 남북관계 및 대전 엑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 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이후 재통합되었다. 2008년부터 UFL연습에서 UFG(Ulchi-Freedom Guardian)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어연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한다.

대표적인 KR/FE와 UFG 이 외에도 각군별 또는 훈련목적별 매년 많은 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표 2> 참조). 한국군 독자적으로는 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등의 대규모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육·해·공군의 전시 합동작전 수행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훈련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일년 중 연합군사훈련이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합동참모본부, http://www.jcs.mil.kr/mbshome/mbs/jcs2/subview.jsp?id=jcs2_020303000000.

<표 2> 기타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기	참가국	훈련 내용
공구사전투준비태세 연습 (PenORE)	연2회	한국, 미국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 대화력전 등
공중급유훈련	연2~3회	한국, 미국	· 급유가능기종 조종사 자격 획득 및 유지 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ific Reach)	3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 잠수함 승조원 탈출 및 구조훈련 등
쌍매훈련 (Buddy Wing)	연8회	한국, 미국	· 공중전투 훈련 · 긴급항공차단 훈련 등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 (Max Thunder)	연2회	한국, 미국	· 방어제공 훈련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긴급항공차단/대화력전 훈련 · 공수, 탐색구조훈련
연합 대잠전훈련 (ASWEX)	연2회	한국, 미국	· 잠수함 추격, 공격, 어뢰 발사(모의) · 대잠자유공방전 등
연합대테러훈련 (Vector Balance Knife)	연1회	한국, 미국	· 레펠/등반훈련 · 대테러/저격수 사격 · 통로개척, 내부소탕 · 유형별 작전(건물, 항공기) 등
연합 특수작전훈련 (Balance Knife)	연3회	한국, 미국	· 한미 비정규전 작전수행능력 배양 · 비정규전 교리 발전 등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연1회	한국, 미국	· 탑재, 여건조성작전 · 결정적 행동(해상·공중돌격, 육상작전) · 연합지휘소 운용 등
코브라골드훈련 (Cobra Gold)	연1회	한국, 미국, 태국	· 연합상륙훈련, 해상기동훈련 · 특수전 훈련 · 인도적 민사활동 · 인도적 작전 지휘소 연습 등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연1회(전투기) 격년(수송기)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 등	· 방어제공 훈련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저고도침투 및 화물투하훈련 등

한·미 잠수함전훈련 (Silent Shark)	격년제	한국, 미국	· 잠수함대 잠수함 훈련 · 공격기뢰 부설훈련 등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SAREX)	격년제	한국, 일본	· 조난 항공기/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등
현대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등	·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 보호 · 해양차단 및 항공강습 · 함포 사격훈련 · 유도탄 및 어뢰발사 · 상륙훈련/특수전훈련 등

자료: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57쪽.

북한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다. 실례로 북한은 “미군이 지금까지 남조선에 벌린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총 1만 3,700여차나 되며 그가운데서 《팀 스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900여차, 군종별, 병종별 미군의 단독군사연습은 2400여 차나 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병력수는 근 2000여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또 다른 문건에서는 “《팀 스피리트》 17차, 《연합전시증원연습》 8차, 《독수리》 24차, 《을지 포커스 렌즈》 33차, 《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 6차, 《키리졸브》《독수리》 4차, 《을지 프리덤 가디언》 3차나 진행되었고, 리명박정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에만도 120여 차에 달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남한 단독으로 980여차 군사훈련을 감행

7) 엄국현·윤금철, 『미룰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평양: 평양출판사, 2004), 98~99쪽;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평양: 평양출판사, 2006), 107쪽.

하였다”고 나열하면서 이들이 명백하게 공격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

유엔사는 북측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에 대한 대응 차원 및 훈련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군정위를 통하여 북한에 사전 통보를 실시하려고 노력해왔다. 과거 팀스피리트는 총 17차례 중 1982년 7차시를 처음으로 군정위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군사훈련 대북 사전통보를 시작하여 1993년 17차 훈련 시 까지 총 11차례 통보하였고 북한도 이를 접수하였다.⁹⁾ 1998년 유엔사 - 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이 합의됨에 따라 유엔사 부참모장(美 공군소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리찬복 상장) 앞으로 통보 재개하였으나 북한군은 유엔사 측의 전통문이 연습 관련 내용일 경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¹⁰⁾

3.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과 같은 제국주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에 근거하고 있다.¹¹⁾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우려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

8) 김영일, 『미군철수 그 절박성』(평양: 평양출판사, 2012), 100~101쪽.

9) 1992년에는 T/S 미 실시하였고, 1993년에는 북측이 한국군 수석대표를 불인정하여 비서장 명의의 전통문을 발송하였다.

10) 한미 연합군사훈련 사전 통보는 판문점 공동일직장교실(JDO: Joint Duty Officer)의 유선을 이용하여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북측의 접수 거부 시, 유엔사 측은 판문점 MDL상에서 메가폰으로 낭독한 사례도 있었다.

11) 피포위 의식은 이 같은 실질적인 위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는

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 뚜렷해진 남북한 경제력의 역전에 따른 재래식 군사력 경쟁력의 약화와 본격화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표면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독일 통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내부의 위기 상황이 겹쳐 지고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군사적 개입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압력과 제재 등으로 ‘피포위 의식’에 대한 공포는 보다 심화되었다.¹²⁾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이 정치·군사적 압력, 끈질긴 경제 봉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 등 세 방향에서 전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 하 미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선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자원의 군사경제로 우선 배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경제병진노선을 내세웠다.¹³⁾ 여기에 대북 경제봉쇄는 북한경제를 질식·파괴시키고 인민들의 불만·혼란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책동으로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정책 등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위협인식은 비타협적인 계급노선, 반제 자주노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미 제국주의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대

고립과 격리의 감정을 의미하며 이는 타자와 자아와의 접촉,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북한의 피포위 의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환경의 변화 혹은 내부정치적 조건에 적응하여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독특한 이데올로기들을 생산해냈다.

- 12) 탈냉전 이후 북한의 피포위 의식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대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 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로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1호(2008)를 참조.
- 13) 병진노선에 대한 논의는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2015)를 참조.

응전략으로 ‘자력갱생 전략’ 추진 등 독특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지, 대북 경제제재 완전 해제 등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주장은 정권 유지 및 체제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에 등장 역시 피포위 의식에 근거한 대외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은 “여러 나라들이 총 한방 봐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강조했다.¹⁴⁾

북한은 이러한 피포위 의식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⁵⁾ 북한은 지난 반세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건설과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수행하고, 한반도 주변 주요 강대국에 대한 우위(supremacy)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¹⁶⁾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축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왔다.¹⁷⁾ 북

14) 김정일, “올해에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7.1.1),”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267쪽.

15)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2012), 102쪽.

16) 2007년 북한의 ARF 연례 안보전망 보고서, 원제는 “ASEAN REGIONAL FORUM ANNUAL SECURITY OUTLOOK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전력을 증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해왔다.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요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86년 6월 17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6월 9일 자 대남 편지를 통해서,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남한 국방부장관, 남한 주둔 연합국 총사령관이 참가하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되, 이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로서는 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②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③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1987년 1월 11일 북한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공동명의로 대남 편지를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다. 이 회담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기초 위에서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논의될 의제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당면조치로서 ① 무력축소 및 군비경쟁 중지문제, ②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③ 큰 규모의 군사연습 중지문제 등과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 제고문제 및 중립국 감시군 조직문제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1990년 5월 31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7) 북한은 군사문제 최우선 해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군비통제’보다는, 일괄타결에 의한 무력감축을 의미하는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2년판)은 ‘군비축소’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갖춘 병력과 무기를 비롯한 수단들을 줄이는 것이며, ‘군비제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갖춘 병력과 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원 연합회에서 소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을 채택하면서 신뢰조성과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군사훈련 금지를 제시하였다. 곧이어 개최된 1990년 9월 5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은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뢰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훈련 금지문제를 제시하였다.

1991년 10월 3일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은 제46차 유엔총회 군축 연설에서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군축실현을 위해 외국군대의 합동군사연습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남북이 각 10만 명 이하로 단계적 무력축소,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력 해체, 새로운 군사기술·장비도입 및 개발중지, 군축의 이행·검증” 등을 주장하고,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제안을 환영”하면서 “남한으로부터 핵무기의 조기 철거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1997년 8월 4일 조국통일 3대헌장 등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자주’ 및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한반도내에서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 전인 4월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선행 실천 사항에도 ‘외세와 공조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첫째 항목으로 규정돼 있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보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자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규정하였다.¹⁸⁾ 이러한 인식은 핵 위협과 연관된 것으로 한

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결국 핵 위협으로 인해 전쟁 종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¹⁹⁾ 김일성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당시 실제 가졌던 공포감은 대단했다.²⁰⁾ 김일성 스스로도 “전쟁시기 월남한 사람들도 남조선이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조선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계급적으로 나빠서 나간놈들도 있지만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떨군다.》, 《진달래꽃필 때 다시 온다.》하고 위협하니 겁이 나서 따라나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라며 당시 내부적으로 동요와 공포가 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²¹⁾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1957년 일본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철수하여 한국에 배치하면서 북한은 또 다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²²⁾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핵무기의 배치가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²³⁾ 북한은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이

18) 『김일성 저작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6쪽.

19)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26개의 핵무기 표적을 선정했다. 함택영,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273~274쪽.

20)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44쪽.

21) 『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48쪽.

22)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반핵운동으로 일부를 남한으로 이전했다. 1957년부터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을 핵무기로 장비를 갖춘 5개 전투단으로 편성된 ‘팬토믹’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남한의 핵무기는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로 남한에서 철수하게 되고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핵 부재 선언’을 하였다. 함택영,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274쪽.

용해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4대군사노선 중 ‘전 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웠다. 김일성은 ‘전국을 요새화’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원자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원자탄을 가진 놈들과도 싸워서 능히 견디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사학에서 원자탄의 효력과 그 방위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²⁴⁾

여기에 1976년 시작되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핵 위협은 지속되었다. 팀스피리트에는 기본적으로 핵폭격 모의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⁵⁾ 당시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공군 『비-52』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다”고 언급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²⁶⁾ 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미일 군사일체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²⁷⁾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줄곧 핵공포와 연결시켜왔다. 1985년과 1986년에 있었던 ‘팀스피리트’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거기에 “조선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을 곳은 동부아세아지역”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극동과 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범위

23) 『김일성 저작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04쪽;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83쪽.

24) 『김일성 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45~447쪽.

25)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162쪽.

26) 『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94쪽.

27) 『김일성 저작집』, 제3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42쪽.

를 확대시키고 있다.²⁸⁾ 김일성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남조선에서 핵작전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⁹⁾ 또한 이런 연합군사훈련이 “전쟁전야에서만 볼 수 있는 험악한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고 우려와 위기감을 표출했다.³⁰⁾

4. 핵보유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은 “미국은 우리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 통치배들을 동족과 대결으로 부추키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³¹⁾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연습 소동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³²⁾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작계와 연결시켜 비난과 공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작전계

28) 『김일성 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82, 368~369쪽.

29) 『김일성 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31쪽.

30) 위의 책, 234쪽.

31) 엄국현·윤금철, 『미룰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폐』, 94쪽.

32) 엄국현, 『조국통일과 미군철폐』(평양: 평양출판사, 2005), 113쪽.

획 5026, 5027, 5028, 5029, 5030에 핵선제공격계획이라는 8022까지 나열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한 각종 북침전쟁계획 세워놓고 이를 근거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급변사태’, ‘조정밀공습’, ‘죽집계공격’, ‘북군부의 동요유도’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계획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기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선제타격을 위한 핵전쟁연습으로 보았다면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전면전 위협보다 북한 핵문제에 의한 미국의 외교적 정밀타격과 공습의 위협에 무게를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질적 위협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에서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의 변화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게 만들고 핵역지력에 바탕을 둔 강경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14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서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전을 포고해 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을 언급하였다.³⁴⁾ 2015년 3월에는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

33) 엄국현·윤금철, 『미룰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 95~96쪽;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86~95쪽; 엄국현,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114쪽; 김영일, 『미군철수 그 절박성』, 91~96쪽.

34)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로동신문』, 2014년 8월 18일.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⁵⁾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한미 간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³⁶⁾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만 7000여 명이 참가했고,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강습상륙함 등 미군의 첨단자산도 대거 투입되었다.³⁷⁾ 이미 지난 2015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한반도 전 공역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중합훈련인 ‘맥스언더’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바로 1년 만에 이를 넘어선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습했다.³⁸⁾ 아울러 포항 일대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 상륙뿐 아니라 북한 내륙 진격을 가정한 ‘쌍룡훈련’을 실시했고, 특히 미 특수

3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로동신문』, 2015년 3월 2일.

36) 3월 7일 시물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연습과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FE) 훈련이 함께 시작되어 키리졸브연습은 2주간 진행되어 3월 18일 끝났고, 독수리훈련은 8주간 실시되어 4월 29일 종료되었다.

37) 핵추진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핵추진잠수함 투산함, 미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인 본햄리처드함과 박서함 등 미군의 첨단자산도 대거 참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군이 연합전력으로 참가했다.

38) 한미 군 수뇌부는 지난해 6월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수정된 전시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다. 이 작계는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인 올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첫 적용됐었다. 이 중 ‘4D 작전’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난해 승인한 ‘작전계획 5015’의 핵심작전개념으로 ‘탐지·교란·파괴·방어’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교란해 먼저 북한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대와 특전사 간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참수작전’ 훈련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번 훈련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이 현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가 세력의 규모에만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훈련 내용 면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에 처음으로 ‘작전계획 5015’을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상한 훈련은 이미 예전부터 실시되어온 것들이다. 상륙훈련이나 소위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과거에는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국방부는 훈련 공개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으로 북한 수뇌부가 외부활동 자제에 나서는 등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가능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격하게 비난에 나선 것이 바로 공포심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공포감의 표현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는 공포감이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과거와 차별화되지 않은 기계화된 훈련의 공개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상황에 대한 경고와 압박보다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내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2016년 2월 23일에는 북한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통해 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랩터 전투기, 한·미 해병대 특수작전연습, 작전계획 5015의 참수작전 등을 언급하며,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체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반발했다.³⁹⁾ 3월 12일에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쌍룡》훈련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상륙을 동반한 《평양진격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주요핵심시설들을 타격하여 《제도전복》을 달성하는 《작전계획 5015》의 최절정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전으로, ‘죽집계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⁰⁾ 4월 6일에는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가증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달아오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⁴¹⁾

훈련 종료 이후 5월 3일자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비망록에 서도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수습불능의 최극단상황에 처해 있다”며 “조미 사이에는 생사 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3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로동신문』, 2016년 2월 24일.

40)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로동신문』, 2016년 3월 13일.

41)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6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⁴²⁾ 이어 5월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도 담화를 통해 “지난 세기 1950년대 초 미국은 보충을 상대로 원자탄을 휘두르며 북침을 단행하였지만 오늘은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막강한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가항력의 존재와 맞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시적인 핵 전쟁소동은 미국본토를 핵 참화의 위기 속에 몰아넣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오히려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⁴³⁾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이번 제7차 당대회에도 언급한 것처럼 반항공 전력의 우선적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항공 전력 강화는 곧 핵무력 건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을 담보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항공 전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과거 팀스피리트와 같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지하병커에서 미국의 공습에 대비하며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공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안심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을 움켜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이다. 어느 한쪽의 양보도 없다면 자칫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 북한의 공격조짐이 보이면 선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 연습으로 인해 사소한 국지적 마찰이 심각한 사태로

42) 『우리민족끼리』, 2016년 5월 4일.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로동신문』, 2016년 5월 26일.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역시 우선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온 상황에서 남북 간 다양한 군사적 문제와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의제 선점이 필요하다.

5. 나오는 말: 필사적인 북한의 엄포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다. 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대표적인 숙적관계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나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의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국력의 비대칭성(truncated power asymmetry)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핵을 통해 일단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 숙적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직면한 환경은 생각처럼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남한만큼 북한 역시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거기에 분단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약함은 때로 힘과 무모한 용기를 발휘하게 한다.

여기에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인해왔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업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면 필사적인 생존이 아니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북한의 위협은 변화에 대한 외부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제재나 군사적 수단과 같은 강압적인 어떠한 수단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⁴⁴⁾ 하지만 이것도 북한이 던지는 위협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

아직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경제문제에 치중하면서 국면 전환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남쪽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에 접근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정권 전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44) 이 상황은 토머스 셸링(Thomas Schelling)의 필사적 행위자 모델(Desperate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10달러를 주지 않는다면 현관에서 자신을 찌르겠다고 했을 경우,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면 그는 더욱 쉽게 10달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을 찌른다면 그 집주인은 사건에 연루되게 될 것이며, 집주인은 자신이 필사적인 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그는 아마도 공식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도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토머스 셸링, 『갈등의 전략』, 이경남 옮김(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13), 44쪽.

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긴 과정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큰 틀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북한의 핵 포기와 맞바꾸는 ‘빅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무엇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필사적인 엄포가 절망의 자포자기식 협박보다는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접수: 7월 15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1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영일, 『미군철수 그 절박성』(평양: 평양출판사, 2012).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 엄국현, 『조국통일과 미군철수』(평양: 평양출판사, 2005).
- 엄국현·윤금철, 『미물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평양: 평양출판사, 2004).
- _____,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평양: 평양출판사, 2006).

2) 신문

- 『로동신문』.
-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 셸링, 토머스(Thomas Crombie Schelling), 『갈등의 전략』, 이경남 옮김(서울: 한국

경제신문사, 2013).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훈령』(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2) 논문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 18권 2호(2015).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유동렬, “대남 비타협적 군사주의 노선: 대남 적화전략 기조유지와 제한적 군사 도발 자행,” 『북한』, 통권469호(2011.1).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함택영,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2000).

3) 기타 자료

합동참모본부, http://www.jcs.mil.kr/mbshome/mbs/jcs2/subview.jsp?id=jcs_020303000000.

Xinhua.

Joint ROK-U.S. Military Drill and North Korean Response: Between Fear and bluff

Kim, Dong-Yub(Kyungnam University)

The reason that North Korea has been sensitive to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can be categorized largely into two assessments based o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external threat recognition. The former is based on rogue state rather than logical assessment in that the primary objective of North Korea asking for the 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drills is to achieve unification under communism through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weakening of the US-Korean military allianc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ROK-US joint drills is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and maintenance of its system.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North Korea considers the ROK-US combined military strength as a critical threat against its survival. It is believed that the threat recognition is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as well as North Korean provocative military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North Korea demanding 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simply based on the threat recognition. A delicate difference has been seen in the North Korea's reaction against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both period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the past and the current Kim Jong Un's regime. North Korea's fear has been amplified with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and the reversal of economic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1970s under the Kim Il Sung's regime when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has begun. It can be said that Pyongyang's condemnation of and demand to suspend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when North Korea did not have the Nuclear has originated from real fear. But it is believed that as a nuclear power state, North Korea's condemnat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nd even mentioning revenge is rather a threat for survival and forestallment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than simply a sense of fear.

Denuclearization/Peace system and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re never unrelated as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labelled as a way to subvert the North Korean regime in a situation that North Korea claims that the nuclear is something absolute for its stability and maintenance. From now on, the issues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can be the first step to start the process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without damaging or threatening the Korea's security.

Keywords: joint ROK-U.S. military drill, North Korea, threat perception, siege mentality, military provocation